**로컬은 우리의 미래**

The following is an excerpt from the first chapter of

[Local is Our Future: Steps to an Economics of Happiness](https://www.localfutures.org/store/#!/Local-is-Our-Future/p/140051233/category=12119219)*,*

***a book by Helena Norberg-Hodge, published by Local Futures in July 2019.***

**[아래는 2019년 7월 Local Futures발행,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저 “로컬은 우리의 미래: 행복의 경제학을 향한 발걸음” 1장의 발췌문입니다.]**

Translated by Seojin Park

**[박서진 번역]**

우리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역화가 있어야만 한다.

좋은 소식은 그러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이미 구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류 언론의 보호를 벗어나, 오래 전부터 경제 논리를 지배해왔던 ‘클 수록 좋다’라는 투박한 주장은 이제 사람과 생태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중심에 두는 더 섬세하고, ‘여성적이고’, 포용적인 관점에 의해 도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서서히 서로와, 그리고 대자연과의 *연결*이 인간의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새롭고 신선한 영감으로 가득 찬 시도들이 진정한 번창의 가능성을 가리키며 샘솟고 있다.

동시에 일반 사람들부터 학계에서까지 진정한 경제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자연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기업 주도 세계 시장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다양화된 지역 시스템으로 나아감으로써 현 경제 체제에 관한 구조적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정치 지도자와 사업가는 이러한 인식을 비롯한 현실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이끌려고 한다. 생명 공학이 세상을 먹여 살리고, 인터넷이 범지구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며, 로봇이 육체적, 정신적 고역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상위 1% 부유층의 재산이 어떻게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 가 도움을 주는’ 세상 말이다.

과연 이러한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구글의 레이 커즈와일은 우리의 음식이 “인공 지능이 조종하는 수직의 건물”에서 올 것이며 개중에는 “시험관에서 복제된 고기’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에 따르면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인류의 생명을 최대로 연장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30겹의 터널”은 지구의 과밀화된 도시들의 교통 체증을 완화할 것이라고 한다. 골드만 삭스는 일상 용품의 디지털화는 “기계, 사람, 인터넷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이며, 이는 더 높은 생산성, 에너지 효율성, 수익성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생태계의 출현을 낳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생각은 미래를 현명하게 바라보며 대담하다는 찬사를 받지만, 이것은 신식민주의적 팽창과 도시화, 상업화, 즉 단순히 그럴듯한 부품으로 강력해지기만 한 지배적인 추세의 확산만을 장담할 뿐이다. 정작 이러한 관점이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 체계가 모든 단계에서 인력과 노동이라는 가장 풍부한 천연자원을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린다는 점이다. 동시에, 우리의 세금은 에너지와 부족한 천연자원의 사용을 극적으로 늘리는 데 쓰이고 있다. 우리는 대량 실업, 빈곤, 오염을 일제히 야기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이 체계는 다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발언권을 가질 수 없게 적극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나는 ‘좋은 사람 vs. 나쁜 사람’ 식의 서술이 옳다고 보지도 않는다. 산업화된 단일 재배를 의도적으로 주창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걸쳐 약 10,000명도 되지 않는 만큼 세계 인구의 극히 작은 일부인 것은 사실이나, 그들조차도 추상적인 경제 모델과 지표에 매료되어 그들의 결정이 현실세계에 가져오는 영향은 보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체계는 우리 모두를 옭아매고 있다. 대기업과 대형 은행의 CEO조차도 단기적 실적과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 시장에 의해 움직인다. 자신의 일자리를 잃고 주주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정상에 머물러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체계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지만 언제나 교체 가능한 개개인이 아니라, 체계 그 자체에 책임을 물고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초반에 언급한 것처럼, 세상은 이러한 방향으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 지구 곳곳에서는 우리가 실존한 기간 전반에 걸쳐 발달해온 공동체에서의 깊은 결속력과 자연과의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그들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들이 그리는 비전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술책과 부의 축적 요령에 관한 소수 억만장자의 집착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 대신,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에 관한 깊이 있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전 세계의 각 대륙에서 일반 주민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사회 조직을 다시 엮어 만들고 지구와 생태계와의 재연결을 위해 하나로 모이고 있다. 그들은 더 뜻깊고 결실 있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풍요로운 지역 경제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역 사회를 구축하고 있다. 공동체 텃밭부터 농산물 직거래 장터까지, 그리고 대안 학습 공간부터 지역 상권 연합과 협동조합까지, 이 모든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랑과 연결에 관해 오래 지속되어 온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반영하는 공간에 기반한 관계를 부활하는 것이다.

지역화를 위한 이러한 시도들이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은, 문제는 인간 본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구와 필요 속에 스며들어 이를 조작한 비인간적 규모의 기술 경제적 단일 재배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인간에게 맞는 규모의 구조로 돌아온 후 생기는 일들을 관찰해보면 이 생각은 더 강화된다. 수감자가 변화하고, 비행 청소년이 의미와 목적을 찾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사회적, 민족적, 세대 간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말이다.

많은 경우, 이 시도들은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상식에 더 기인한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함께 기업 중심 질서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며 미래에 관한 매우 다른 비전을 명확하게 그린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내는 이 움직임은 전통적 좌익-우익 이분법을 초월한다. 이것은 다양한 인류의 가치와 희망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자연에 기반한 문화를 재정착시키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고투입, 그리고 기계화된 단일 재배 체계로 생필품을 생산하는 멀고 책임을 묻기 어려운 독점에 대한 의존을 멈추고, 지역의 수요에 맞는 장인 제작의 지역 생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소비지상주의와 끝없는 팽창을 부추기도록 판매자와 광고주가 형성한 인위적인 욕구가 아닌, *실제의* 필요에 있다.

지역화는 투기와 부채라는 매우 불안정적이고 착취적인 거품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자연 세계와 접촉하는 실제의 경제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셀 수 없는 양의 완벽하게 곧은 당근을 요구하고 들어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트 체인점에서 하는 것처럼), 지역 시장은 다양한 상품을 필요로 하므로 더 다양화되고 친환경적인 생산을 장려한다. 이것은 기계와 화학 약품이 더 적게 투입되는 음식이 늘어나는 것과, 땅을 가꾸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더 의미 있는 고용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플라스틱 포장이 필요 없어지며, 야생 생태계를 위한 공간이 늘어나고, 지역 사회에서의 부의 순환이 활성화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접적 대화가 증가하고, 진정한 상호의존에 기반한 문화가 번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지역화의 ‘해법 승수효과’이며, 이 패턴은 우리의 식품 체계를 넘어서까지 적용된다. 맹목적이고,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전문화된 전 세계의 단일 재배 체계에서는 주택 단지 개발을 위해 수입된 철재, 플라스틱, 콘크리트를 사용하며, 정작 현지의 떡갈나무는 완전히 파괴하여 나뭇조각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와 반대로, 거리를 구조적으로 줄인다면 면적당 더 많은 농작물을 심을 수 있으며 가용 자원을 더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보건과 교육 등 분야에서 대단히 중앙집권화되고 자동화된 체계에 대한 의존을 없앤다면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 비율의 균형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개개인의 필요와 역량을 위한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실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모든 마트 선반에서의 가격표처럼, 실업은 중앙집권화된 이익 창출에서 주문과도 같은 ‘효율성’에 따라 그 순간에 내려지는 정치적 결정이다. 정치적 좌파와 우파 모두 ‘클 수록 좋다’라는 신조를 지님에 따라, 시민들에게도 별다른 대안은 없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맞는 규모의 경제를 강화한다면, 의사결정 자체가 탈바꿈될 것이다. 우리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작은 체계를 형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의 행동과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망에 우리 자신을 정착시킬 수 있다. 공동체와 지역 생태계에 대한 우리의 영향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경험에 의한 인식으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우리 주위 생명의 복잡성으로 인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든다.

기본적인 수준에서 지역화는 세상의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본질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상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 세상을 단어와 고정된 개념과 숫자로 보는 것처럼 – 우리는 각각의 사람, 동물, 식물이 특별하며 순간순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지역화는 우리에게 이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있는 관계망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는 기쁨을 느끼는 데 필요한 친밀함과 속도를 제공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개의 길에 관한 냉혹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다. 하나는 우리를 빠르고, 대규모이며, 단일 재배인 기술 개발로 가차없이 이끌고 있다. 이 길은 우리를 서로와 자연 세계로부터 분리하며 우리의 사회적, 생태적 쇠퇴를 가속화한다. 다른 길은 하나뿐인 지구를 보살피며 우리의 물질적 필요와 더 깊은 인간 욕구를 충족하기에 필수적인 사회적, 경제적 구조를 복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규모를 다시 줄이며, 깊은 연결성을 조성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Paperback copies of* Local is Our Future *are available to order from* [*Local Futures’ online store*](https://www.localfutures.org/store/#!/Local-is-Our-Future/p/140051233/category=12119219)*.*

**[“로컬은 우리의 미래” 종이책은** [**Local Futures 온라인 스토어에서**](https://www.localfutures.org/store/Local-is-Our-Future-p140051233) **주문 가능합니다.]**